

Indigo Blue 데님의 붐

데님은 3×1 조직의 태능직으로 보통 청색 또는 갈색의 경사로 짜며 주로 노동자용 작업복으로 사용되는 거친 능직 천이다. 권위 있는 Mercury 섬유용어 사전에는 데님이 지난 몇 년 동안 진정한 유행의 국제적 표본으로 될 만 하였고 의심할 바 없이 세계 곳곳의 섬유업자의 생활을 밝게 해 준 직물이라고 묘사했다. 영국의 피복 제조업자들은 그들 사업에 활기를 주었던 것들 중에서 데님을 제일로 보고 있으나 직물 제조업자들은 그것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 하다.

직물로서의 데님은 상당히 생산하기 간단하며, 청색을 나타내고자 하는 데는 보통 사용되는 기술이 인디고 염색법을 사용한다. 이 염색법은 3~4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북미의 독점물이었으나 현재는 세계 도처에서 사용하고 있다. 인디고 염색법은 다른 염법으로도 대응될 수 있으나(예를 들면 바트 염법) 데님의 바람직한 특성이나 색이 빨리 바래는 특징을 살리는 방법은 오직 인디고 염색 뿐인 것 같다.

<인디고 염료의 수급상황>

현재 인디고 자료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서독, 일본 등지에서 생산되고 있다. 미국의 수요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이용 가능한) 공급량을 소화하는 경향을 띄어왔다. 그러므로 유럽과 일본의 생산자들은 세계 여타지역의 급증하는 수요량을 공급하려고 시도해 왔다.

인디고 자료의 수요량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가는 IIC(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tton)가 인용한 숫자로 잘 나타나고 있다. 서독의 면데님 진(jean)의 판매량이 1973년에 9백만벌이었고 그 다음 해에는 15,000,000벌에 달하였으며

1975년에는 18,579,000벌의 기록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이탈리아에서도 데님이 전체 바지 판매량의 57%에 해당되는 19,310,000벌 이상에 달하였다.

그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는 영국내에서의 인디고 염료의 부족상태였다. 왜냐하면 Cheshire의 Ellesmere port에 위치한 ICI의 인디고 생산공장은 연간 총생산량이 3,000톤에 달하였으나 다른 요인이, 인디고 염료 공급량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국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그 원인들 중의 하나가 가격위원회이었다. 어떤 인디고 염료 공급자들은 외국의 거래처로부터 100% 이상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고에 의하면 가격위원회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한 때 영국내에서 생산된 염료의 90% 수출될 정도로 인디고 염료의 국내수요가 급증하였다. 현재는 영국에서 생산되는 인디고 염료의 약 75%가 수출되고 있다.

<일시적 현상?>

오늘날 홍콩, 튀니지아, 파키스탄까지도 데님직의 국제적 공급자로서 그들의 위치를 강화하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인디고 염료의 공급자를 찾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실업적이지 유행 중심적인 아닌 염료 생산자들은 현재는 구매력이 강하나 유행의 일시적 변덕으로 볼 수 있는 것에 지나친 신뢰를 두기를 꺼려하고 있다. Jeans는 일종의 새로운 범국제적 참여의 상징이며 계속되는 전후세대들의 “마음을 같이 한 형제”라는 충동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옷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ICC는 인디고 염료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투자되는 자본을 채산성이 맞게 회수하려면 적어도 앞으로 10년간 현재의 시장수요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옷의 유행에 기대를 걸고 ICI가 투자를 확신하지 못하는데 동감하고 있다.

극동에 인디고 암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영국의 데님 제조업자들은 아마도 인디고 염료에 대한 구매력이 계속 저조할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 소비되고 있는 막대한 양의 데님의 출처는 비록 대부분의 출처는 예측하기는 쉽지만 무언가 불명확한 점이 있다. 유럽의 가장 큰 jeans 제조업자인 Levi-strauss는 인디고 염색된 면데님의 필요량의 약 20%를 현재 유럽의 하청계약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있고 이 비율은 5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파키스탄도 데님 시장으로 유럽과 북미에 점차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파키스탄 수출진흥사무소는 국제 데님수요의 보다 완벽한 조사의 일환으로 이 지역의 잠재시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팀을 보낼 계획이라고 보고되었다.

튀니지아도 정부의 장려책에 힘입어 데님 생산의 중심지가 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Levi-strauss, 영국의 Lee Cooper 그리고 프랑스의 New Man 데님 제조업자들을 포함하는 몇몇 회사들은 튀니지아 정부가 수출상품의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외국상사들을 위하여 재정적 상업적 혜택(세금특혜, 관세면제, 경비경감)을 제공하는 데 매혹되어 왔다. Lee Cooper 회사는 이미 1977년 말까지 연간 생산량 6000벌의 제조시설을 Ras Diebel에 세웠다. 동사는 이 공장을 유럽시장에 공급할 데님 제품의 주공급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Georgia주 Columbus에 본부가 있는 Swift Manufacturing Co., Inc.는 현재 Tunis의 교외에 데님 제조공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오랜 전통이 있는 회사다. 1978년 말까지는 생산량이 3000만^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가지 기술>

여러 가지 직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류가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섬유기술로서 그다지 각광을 받지 못하던 분야에서 특별한 형태의 섬유기술이 개발되었다는 면에서 흥미 있는 일이다. 데님직물의 제조는 상당히 간단한 일이나 천을 유행복으로 만드는 데는 전혀 다른 기술이 요구된다. Jean의 경우에는 easy care의 특성을 갖는 유행복으로 만드는데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가급적 재봉부분이 오그라지지 않도록 (Seam Puckering) 수축을 조절하는데 관계된다고 말할 수 있다.

ICC는 이 점을 jeans 시장에 대한 혼방직물의 도전이(ICC는 사실상 모든 생산업자들이 easy-care jeans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폴리에스터/면 혼방제품을 시도해 왔었다고 말한다.) 거의 전면적으로 삭감되었음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90% 이상이나 100%면이 jeans 판매량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섬유시장이 이 분야에서 면의 지위를 강화시킨 주요 발전의 하나는 미국 내에서의 면직물의 액체 암모니아 가공방법 개발이었다. ICC는 소비자가 혼방 jeans을 아주 싫어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자들은 easy-care 면제품으로 행운을 잡을 기회가 왔다고 말하고 있다. 시장 모험은 막대한 초기비용을 수반하는데 Bluebe/wrangler사는 미국시장에서 주름지지 않는 면 데님을 생산하는 액체 암모니아 처리의 상업화에 진력하였다.(이 가공공정은 일찍이 ICC가 초기 연구당시 노르웨이 섬유연구소와 협동연구로 개척한 것이다.)

Blue bell의 모험은 1973년 말에 미국 소비자들에게 다리지 않는 데님(non-iron denim)을 선보임으로서 절정에 다 달았는데 그 후 2년간에 걸친 새 스타일의 jeans 판매성적은 easy-care 데님이 그 개발업자들의 신념에 보답할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 주었다.

작년 초에 미국 제 2의 면데님 대생산업체인 Riegel Textile 회사가 Sanforset의 과정을 통하여 easy-care 데님을 생산하는 특허를 취득했고 최근에는 백만 파운드 이상의 비용이 드는 액체 암모니아 공장을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이 작동하게 될 때 연간 미국의 총 데님 생산량의 약 20%(5억 yds)가 액체 암모니아 공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진보된 기술이 튀니지와 같은 지역에 외국상사들이 공장을 세우도록 자극하는 삼각무역제도를 통하여 유럽 섬유산업의 해외 무역경쟁자들에게 이용될 수 있었다는 데는 불안한 생각이 들게 된다. 이런 점은 영국 섬유산업계의 공통적인 견해로 정부측이 국내산업에 매우 적대적이라고 생각될 때 튀니지아 정부는 영국회사에서 설치한 데님공장으로부터 40%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그러하다.